

비극의 폼페이, 성적 유희 보여주는 유물 가득



김성후 교수의
자동차로 유럽여행 2부 <18>

세계 3대 미항 나폴리와 카프리스섬

박물관 모태가 된 곳 평가 국립고고학박물관
알렉산더·헤라클레스·파르네제의 황소 눈길
카프리스 섬, 나폴리와 쌍벽 이루는 고급 휴양지



카프리스 섬의 항구인 마리아 그란데.

나폴리 국립고고학박물관은 박물관의 모태가 된 곳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비극의 폼페이를 품은 곳이니 그만큼 유명한 곳이다. 그곳 비밀의 방에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폼페이 시대의 성적 유희를 보여주는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그 시대에는 출산을 증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성적인 환상을 자극하는 분위기를 허용했고 성적 노리개 등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벽화도 포르노 성격이 많은 뿐만 아니라 현관 손잡이 등 일상생활 용품에도 성적인 요소나 디자인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인해 로마는 성적 쾌락추구의 극대화 때문에 망했다고 윤리주의자들은 말한다. 로마 시내의 카라칼라 대형 목욕장에서 이루어진 타락과 일탈 때문에 로마는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귀족에 의한 라티퐁다움이라는 토지의 독과점으로 인한 불만과 빈민의 양산,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망한 것이 정설이지만.

국립고고학박물관의 알렉산더 대왕의 전투 장면 묘사도는 가장 유명한 로마시대의 모자이크 그림이다. 5.82x3.13m의 대형 모자이크는 기원전 333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이소스에서 벌인 전투를 묘사한 사실적인 그림이다.

로마나 폼페이에서 발굴된 목욕탕의 모자이크 그림은 투박한 데 비해 이 그림은 너무나 세밀하여 기마대의 역동적인 장면을 잘 보여준다. 왼쪽에선 기마병을 이끌고 진군하는 그리스 군대가 묘사되어 있고 우측에는 페르시아 군단이 맞서고 있는 장면인데 다양한 색의 돌을 사용하여 명암을 살리고 자세하게 묘사하여 입체감을 살린 수작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기릴 때 종종 텍스트에 소개된다. 이 전투에서 대왕이 패배했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그리스·로마문화가 역사상 개화하는 일도, 그 이후 서양문화가 전 세계를 압도하는 역사적 사실도 없었지도 모른다.

국립고고학박물관에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인 헤라클레스의 조각상도 있다. 그리스 신 가운데 으뜸인 제우스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12번의 시련을 이겨내는 영웅인데 자신의 공동체에

기댄 채 쉬고 있는 전신상을 대리석으로 조각했다. 강인한 육체의 근육질과 변인이 잘 표현된 얼굴 표정은 수작이 아닐 수 없다. 고대 그리스시대의 청동상을 대리석이 풍부한 로마에서는 돌에 새긴 모사품이다.

이곳의 또 하나 걸작품은 '파르네제의 황소'라는 황소 조각상이다. 이것도 세밀하게 조각되어 황소가 날뛰는 광경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청동상을 대리석상으로 모사했을지라도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본 원고에서 고대유물을 언급하다 보니 폼페이 여행편을 함께 묶어서 고대 문명과 문물이란 주제를 살릴까 했지만 카프리스 섬 여행이 일정상 앞서니 카프리스 편을 먼저 다룰까 한다.

나폴리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 고급 휴양지인 카프리스 섬은 나폴리 항구에서 남쪽으로 배를 타

고 한 시간 가량 건너가야 한다. 나폴리만을 남동쪽으로 빙 돌아 소렌토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도선하면 훨씬 더 가깝지만 대부분의 여행객의 거점은 나폴리이니 나폴리에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많은 여행객이 일정한 나폴리를 끝으로 햇살이 눈부신 이 지역 여행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4만세기 전에 이곳에 왔지만 카프리스는 꿈꾸지 못했다. 물론 소렌토도 언감생심이었다.

간밤에 야경으로 우람하게 신비한 자태를 드러냈던 누오보 성 인근 선착장에서 배를 탔다. 낮에 보는 이 성채는 각광을 받는 야경과는 달리 독특한 성곽 구조가 그 위용을 자랑했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페리가 항구에서 멀어질 때 누오보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했고 시내 언덕의 산열모 성채도 낮아지기 시작했다.

겨울철에도 눈부신 지중해를 우리의 유람선은 하얀 포말을 만들며 쾌속으로 질주했다. 나폴리 항구의 서쪽으로 길게 뻗어나간 나지막한 반도가 이색적이었다. 아하, 저렇게 긴 반도가 나폴리 항을 밖으로 감싸고 있구나! 항구 자체도 아주 기다란 방파제를 갖고 있는데 햇살이 바닷물에 반짝이며 윤슬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지형적인 특성이 작용하는구나! 우측에선 베수비오 화산이 높다란 장벽을 이루어 바람을 막아주니 이런 천혜의 항구가 어디에 따로 있을까 싶다. 이제는 휴화산으로서 오랜 휴식을 취하는 베수비오 화산의 능선도 선상에서 바라볼 제 이국적인 풍광으로 인상적이었다. 폼페이를 삼킨 화산재를 공중으로 날려 보내면서 산 정상에 등그런 능선이 함몰된 광경은 과거의 슬픔을 반영하고 있었다.

/동신대 호텔관광학과 교수

목향으로 맺어진 귀한 만남

금봉미술관, 31일까지 '필목 벗하다' 전



김집중 작 '구례 윤흥정'

금봉미술관(관장 한상운)은 12월 기획전으로 '필목(筆墨) 벗하다' 세 번째 정기전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금봉미술관 1층 제1전시실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남도 화맥의 계승과 함께 전통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미술관이 남도 전통 문화강좌 활성화와 함께 한국의 전통예술

영역인 수묵화 교육사업을 강화해 전통 수묵화에 관심이 있는 지역민과 함께 다년간 준비한 결과물이다.

'필목 벗하다'라는 전시명제에서 보듯 일반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전통예술을 접하며 필과 묵을 가지고 전통이라는 명제에 대한 생각들을 다양하게 접근 해석했다.

수묵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인 문인화, 서예, 산수화 등으로 재미있고 풀

어낸 작품들은 시민의 정신적 풍요로움을 진작시키고 문인화의 저변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묵화 지도강사 윤영동, 조창현, 광영주, 김병균을 포함, 강숙자, 김익순, 김중철, 김집중, 김혜란, 나기대, 백은희, 이재현, 조영성, 최은선, 황지민 등 모두 35명이 참여한다.

'필목 벗하다' 전시개전 연계행사로 지도강사인 4명의 작가가 합작 휘호 작품제작 시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프닝시는 7일 오후 4시. /이연수 기자

"문화전당 내년 사업 제안하세요"

ACC, 13일까지 '참여의 전당'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내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 희망사업을 제안받는다.

ACC는 "오는 13일까지 ACC 홈페이지 '참여의 전당' 게시판에서 ACC에 바라는 2020년 희망사업 제안과 아이디어 등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ACC 미션과 비전, 추진 과제에 부합한 제안이면 기관·단체·개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방법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의 '참여의 전당'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고 복수 제

안 제출도 가능하다.

2020년 사업계획으로서의 실행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ACC는 내년 희망사업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 제안도 전문가 등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이나 ACC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의 전당'은 2018년 5월부터 시행해온 ACC의 소통창구로 지금까지 56건이 접수·운영되어 왔다.

/이연수 기자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2019 December Vol.49



커버스토리
조인호 완도군의장
비판만 하는 의회 지양
지역발전 합심

지역특집
신안 1도 1유지엄
스포츠 & sports
KIA 윌리엄스 신임 감독

커버스토리

비판만 하는 의회 지양, 지역발전 합심

초선 의원 많은 의회 노력 통해 성숙
올해의 대한민국 의회발전 '대상' 영예

완도군의장 조인호



정국풍향계 / 정치쇄신
"이젠 갈 때가 됐다" 여야 쇄신론 가열



전매 초대석 /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산물 제값 받기...소득 5천만원시대 성큼



정치레이더 / 2020년 초선
호남발 야권 정계개편...선거구 획정 등 변수



주목! 이 사람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보성 득량만 요트산업 최적...
해양레저 산업발전 기대

풀뿌리의정 기초의원탐방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주민간담회 통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

지역특집 신안 1도 1유지엄

신안 관광 침범역할 '자전거 투어'



이달의 문화인 김인재 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잠재된 음악적 최대치 끌어낼 것"

스포츠&sports 기아 윌리엄스 감독
"우승 위한 시스템 구축하겠다"

컬처 앤 아트 연말 불만 영화
겨울왕국2, 백두산 등 연말 극장가 화려한 격돌

